

일본, PET병 순조로운 성장세

소형 중심으로 2006년 60만톤 시장 ... 생분해필름도 급성장

일본에서 PET병이 2006년에 60만톤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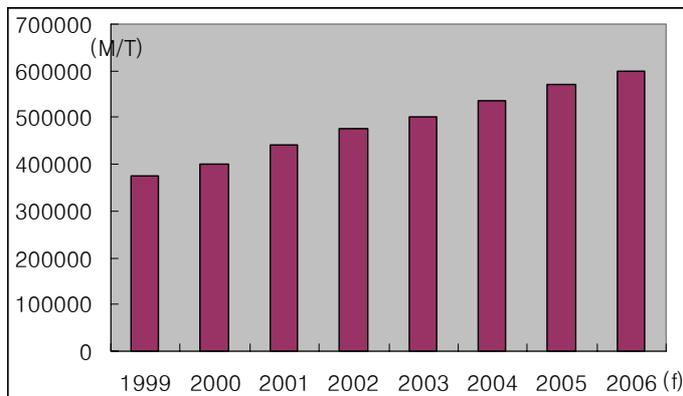
Fuji Chimera Research Institute에 따르면, PET병의 순조로운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002년 포장재료 시장은 전년대비 0.7% 감소한 3조5125억엔이며, 2003년 이후도 일부 성장품목이 있으나 2006년까지는 본격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보합세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음료용기 6품목, 용기 9품목, 기타 경포장 6품목, 연포장필름 9품목, 물류·속포장 10품목, 기타 관련재료 10품목 등 6분야 50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음료용기에서 PET병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2001년 판매량은 10.3% 증가한 44만2000톤으로 크게 확대됐으며, 2002년도 6.8% 증가한 47만3000톤을 기록했는데, 성장률은 약간 둔화됐으나 소형병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 추세이다. 향후 시장규모는 2003년 50만5000톤, 2004년 54만톤, 2005년 57만5000톤, 2006년 60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리사이클도 용기포장 리사이클법이 시행된 이후, 회수율이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 1997년까지 10%에도 미치지 못하던 회수율은 2001년 40.1%로 회수량이 16만1651톤을 기록해 유럽과 미국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일본의 PET병 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1999-2002년 판매량은 PET병협의회 통계, Fuji Chimera Research Institute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조사에서는 PP(Polypropylene) 발포용기를 비롯해, Loose-fill Cushioning Material, 생분해성 플라스틱필름, EVO공압출OPP필름 등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PP발포용기는 뛰어난 내열성, 단열성, 보습성 등을 지니고 있어 전자렌지용 용기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PP필름Filler용기에 비해 경량이기 때문에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시행과 함께 식품 메이커와 소매업자에 부과되는 중량에 따른 재자원화 코스트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점이 있다. 2002년 실적은 수량 베이스로 104.5% 증가한 4만5000톤이었으며, 2006년에는 10만9000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생분해성수지 필름/시트는 2002년 실적인 8000톤에서 2006년에는 10만톤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Cargill Dow가 2002년부터 연평균 14만톤 설비를 가동했으며 2015년까지 450만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Kanebo Gohsen, Mitsubishi Plastics, Unitika, Kurara가 각각 1만톤의 수입판매계약을 맺고, 적극적인 용도개발에 나서고 있다.